

소반 가득한 여백의 美... 무심!

연꽃 · 팔정도 등 부처님세계 소반에 가득
3백년 이상 고목 겹쳐한 마음으로 다루며
전통 기법위에 현대감각 불어 넣어
후학 양성 · 신형 활동 불자로서 삶 충실

목공예 명장 1호 유석근 씨

백제의 문화를 느끼고 싶을 때면 사람들은 충남 공주시를 찾는다. 공주의 백제문화에 대변하는 무령왕릉을 통해 소중히 간직된 옛 백제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무령왕릉 내의 충남공예협동조합전시장에는 자칫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운 우리 전통과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자랑스런 불자가 있다.

젊은 열 일곱 소년으로 정수직업훈련원에서 목공예를 배운 것이 1973년. 어느새 31년이란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 목공예 명장 1호'의 명예를 지켜가고 있는 유석근(49·공주신행단체연합회 수석부회장) 한목에서 대표가 그이다.

유 명장의 공방에 들어서면 그의 공예솜씨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소반(小盤)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반이란 음식을 담은 식기를 받치는 작은 규모의 상을 말한다. 소박하고 단순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목공예품이다. 소반은 나주반과 해주반, 통영반, 충주반 등이 대표적인데, 유 명장이 만드는 공주반은 전통의 목상감(木象嵌) 기법을 소반에 담은 것이다. 문양과 선의 아름다움에 탄복, 이를 복원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그의 작품세계의 주를 이뤘다. 연꽃을 소재로 한 연화문(蓮花文)과 팔정도를 상징한 8각, 12연기를 상징한 12각문 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 그의 소반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손으

로 그리다 해도 따라하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다.

"느티나무를 깎아 못 하나 없이 끼어맞추는 정교한 작업(0.3mm 이하)을 할 때는 돋보기를 써야 할 정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망상이라도 할라치면 칼과 끌에 손가락을 다칠 정도니까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은 집어던져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해서 수명이 최소 200년은 될 정도라고 한다. 그의 작업에는 불상을 어루만지듯이 정성이 흠뻑 배어있기 때문이다.

"작업할 때는 소반도 없고 나도 없고, 없다는 생각도 없죠."

젊은 시절 동학사에서 철야참선 할 때, 1시간이 5분 정도로 느껴 정도로 참선삼매에 빠진 적도 있다는 그는, '일삼매' 속에서 시간이 사라지는 체험을 종종 하고 있다. 나와 사물이 일체가 되는 '심경일여(心境一如)', '물아일회(物我一會)'의 경지라고나 할까.

유 명장의 작업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에 몰두할 때는 가족의 일이나 신형단체의 활동과 같은 번잡한 생각이 씻은 듯이 사라져 곧바로무심(無心)이 된다. 그래서 간혹 전화 벨이라도 울리면 깜짝 놀라고, 손님이 찾아오면 작업이 중단되어 다시 이어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다. 장인의 삶 자체가 이렇다 보니 스님들은 늘 그에게 "거사님은 절에 와서 참선할 필요도 없겠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유 명장이 사용하는 목재는 최소 수령 3백년 이상의 고목들. 50년도 살지 않은 그가 여섯 배나 나이트 나무를 다루다 보니 겹쳐해 질 수 밖에 없단다. 특히 여름 때 아버지가 동네 느티나무를 향해 절하던 모습을 기억하면 500~600년 수령의 나무를 더욱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금속이나, 흙보다 느낌이 좋다는 나무의 질감을 그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기교 안부리고 나무의 자연스런 결을 살려 절제해서 표현하려 해요.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게 더 어렵죠."

예스러운 고풍미(古拙美)를 강조하는 그의 소반은 디자인 스케치, 도면 작성, 마름질, 조각 및 대패질, 상감(木嵌) 표면에 무늬를 새겨서 그 속에 같은 모양의 보석, 자개 등을 박아넣는 기법) 작업, 조립, 사포질, 옷칠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탄생된다. 기술과 외형상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문양과 디자인은 '신지식인(1999년)' 답게 현대적인 이미지를 함께 담고 있다.

"우리 시대의 문화재"를 지향하는 그는 전통을 이어가되 후세에도 이 시대의 창작품을 남을 수 있도록 독창성을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반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집대성하는 꿈을 갖고 있는 그는 여전히 겸손한 장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

1988년 전국에서 300여명의 장인들이 출전한 대회에서 '목공예 명장 1호'란 영광스런 타이틀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때 명장에 대한 욕심을 내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마음을 비운다'는 게 어떤 것임을 알게 되었지요."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고 해야 할까. 그는 스승보다 1년 먼저 명장의 자리에 올랐다. "진정한 작품을 위해서는 손재주가 아닌 가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스승 제갈재호 씨의 말을 항상 가슴에 새겼던 그는 매 작품을 완성하고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 못할을 반성한다. 스스로의 질책이 창조적인 작품활동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한번도 든 적이 없어요. 매 작품마다 도공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를 깨어버릴 때의 심정을 느끼죠."

불교집안에서 성장한 유 명장은 불교를 배우면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동시에 심화시켜 왔다. 대불청 충남지구회장 6년, 중앙수석부회장 3년, 현 공주신행단체연합 수석부회장 소임 등이 그의 열성적이었던 신형 이력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유 명장은 충남도 공예협동조합 이사장직을 10년여 동안 맡아 공예업체에 대한 기술지도위원과 각종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해 왔다. 또 충청대학교, 공주전문대 등에서 전통공예와 가구디자인에 대한 강의를 맡아 후학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불교사랑, 전통사랑, 이웃사랑에 쏟아붓는 열정으로 개인의 경제적, 시간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는 우바세의 중도적 삶이 어떠해야 할 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글=김재경 기자 · 사진=고명배 기자

소반에 훑칠하고 있는 유석근 명장.



세계가 격찬한 소리와 문양, 聖鐘社 梵鐘

본사는 옛날 신라인들이 名鐘을 제작하는 기법인 밀랍(蜜蠟)주조공법을 재현하는데 성공하여 그 예술적 미와 아름다운 소리를 후손에게 다시 보고 들을수 있게 하여, 세계에 우리나라 범종의 우수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사는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신라범종의 섬세한 문양과 아름다운 소리를 재현함으로써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미국, 말레이시아등 세계각국으로 수출, 그 예술적 가치와 명품의 소리를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는 50여년간 범종의 문양과 소리의 연구에 매진하여 범종계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명장과 인간문화재로 지정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인정신으로 더욱정진하여 이시대에 걸작품의 범종을 주종하는데 매진 하겠습니다.

2004. 5.
성종사 대표원 광식 합장

성종사 보유 신기술

- 밀랍주조공법 범종의 표면에 기포없이 깨끗하고 정교한 문양으로 주조하는 공법
- 음향조율기술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로 음향을 분석, 음의 질과 양을 조절하는 기술
- 특수 열처리공법 금속 조직을 균일화 시켜 질감있는 소리, 부드럽고 은은하게 하는 공법
- 특수 착색 공법 범종의 착색에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아름다운 색상을 재현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목리 406-28 TEL : 043-536-2581 / FAX : 536-2582

● 홈페이지 : www.sungjongsae.co.kr E-MAIL : sungjongsae@hotmail.com



△성종사는 충북진천군 덕산면 함목리에 부지 6,000평 넓이 530평 높이13m 공장을 완공하여 최대2만관규모의 종을 제작할수 있는 국내 최대의 제종소를 가동중입니다.



△정통양식의 문양은 정교하면서 깨끗한 표면으로 주조되었다(난) 밀랍주조공법으로 재현한 아름다운 비천상(下)